

# 교육부 눈치·구성원 갈등... 총장도 맘대로 못뻐야



**<4> 방향타 이끌 리더가 없다**  
**신입생 감소로 생존위기 불구**  
**재정지원사업 따내기에만 급급**  
**전남대·조선대 총장선출 파열음**  
**교수들 릴레이 시위 벌이기도**

지역 대학가가 시끄럽다. 조선대와 전남대는 곳곳에서 파열음이 끊이지 않는다. 총장 선출을 둘러싼 구성원간 갈등 요인이 복합적으로 분출하면서 내분도 휩싸이는가 하면, 교수들의 릴레이 시위도 이어지고 있어서다.

지역 대학 대부분이 입학생 감소로 '생존'을 위해 전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이지만 구성원들의 역량을 결집해 대학 발전을 이끌어갈 장기적 안목의 리더십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게 대학가 안팎의 목소리다.

대학 내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담론을 생산하는 모습은 아예 기대조차 하지 못한다. 지역 대학의 위기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조선대는 총장 선출 규정을 둘러싸고 극심한 내홍에 휩싸인 상태로 앞날이 '안갯속'이다.

법인 이사회의 총장 선출 방식에 반발해 구성원들이 천막 농성에 들어가는가 하면, 교수평의회에서는 대학자주운영협의회(대자협) 주도로 새로운 총장 선거를 치르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조선대 이사회가 총장 선출 방식과 관련, 직접 투표에 참여할 구성원 비율을 전임교원의 경우 70%로 정하고 직원(18%)·학생(9%)·동문(3%) 등이 30%를 채우는 방안을 확정된 게 불을 당겼다.

교수평의회·대자협 등은 자신들의 요구(전임교원 75%·직원 15%·학생 7%·동문 3%)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반발하며 더 이상의 총장 선출 절차 진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학 내부 게시판에도 구성원간 갈등·비방전이 끊이지 않는다. 급기가 총장 선출 문제를 계기로 이사회 임원 비리 의혹

을 비롯, 재학생원 투자 손실 등 경영상 문제까지 제기되며 혼돈 상태다.

이 과정에서 등록금 의존율이 높음에도 정부 재정지원 사업 수주를 노리며 몇 년간 동결하면서 겪고 있는 재정난, 입학생 수 감소로 인한 경영난 타개를 위해 해외 학생 유치전을 벌이는 현안 등에 대한 고민은 한꺼번에 밀려오는 듯 보인다.

이같은 학내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고 보듬어 줄 리더십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지역사회는 우려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개교 70주년을 맞아 호남 최고 사립대학으로 도약할 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게 시급한데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학을 위해 비전을 제시하고 방향타를 이끌어갈 특목의 리더십도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남대도 총장 선출 문제로 교수 릴레이 시위에 총장 담화문 발표 등으로 혼란스럽다. 전남대는 최근 재정난 타개를 위해 재정지원사업을 따내는데만 관심을 기울이면서 지방대 특성화사업에 무더기 탈락, 거점국립대로서의 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상황이다.

대학 안팎에서는 총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이 조속히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대학

경쟁력 확보를 위한 행보가 그만큼 더뎠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 총장은 최근 전남대 교수들의 총장 직선제 촉구 릴레이 시위와 관련, 지난 4일 전 구성원들에게 담화문을 보내며 재능을 요정했다.

그는 담화문을 통해 "총장 직선제를 선택함으로써 감당해야 할 불이익이 너무 커 경쟁력 저하를 염려해야 할 만한 수준"이라며 "Brexit에 대한 국민투표 이후에 영국이 겪고 있는 혼란을 반면교사로 삼아 속고해야 한다"며 재능을 재차 요정했다. 전국국립대학교교수회연합회는 다음날 총장 직선제 촉구를 주장하는 대학 평의회 지지 성명을 낸 바 있다.

지역 나머지 대학들도 정부 재정지원사업 수주 및 취업률 높이기에만 총력을 쏟으면서 지역사회 개혁과 담론을 형성하는 지역 대학의 역할을 하는데 소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태석 전북대 교수는 최근 열린 심포지엄에서 "대학은 지식의 자율성이 숨쉬는 최후의 보루"라며 "지식인은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사회개혁과 시민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선거법 위반' 서삼석 전 후보 등 5명 영장 기각

무안군수를 지낸 서삼석 전 더불어민주당 후보 등 5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 전 후보와 강도 전 부군수, 함모씨, 박모씨, 유모씨 등 5명에 대해 지난 4일 구속 전 피의자 영장(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해 5명 모두 영장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들이 지난 4·13 총선 당

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나선 서 전 후보의 당선을 위해 '무안미래포럼'이라는 유사선거 조직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무안미래포럼은 무안지역 발전을 모색한다는 취지로 2014년 설립됐으며, 서 전 후보는 4명도 공문을 맡았다. 강 전 부군수 등 나머지 4명도 무안미래포럼에서 활동했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 경찰관 주도 '중국 도자기 사건' 피의자 3명이 속고 속인 사기극

현지 경찰관이 주도한 '10억원대 중국 도자기 사건'은 연루된 3명의 피의자들이 서로 속고 속이는 사기극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에 사용된 중국산 도자기의 가치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5일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정식)와 북부경찰에 따르면 광주 모경찰서 소속 A(44) 경사는 지난 2014년 지인을 통해 사업가 B(50)씨를 만났다. B씨는 이 자리에서 솔깃한 '정보'를 들었다.

"돈 된다" 경찰·지인 짜고 부추겨 사업가는 더 챙기려 투자금 부풀려

A 경사는 "지인이 중국에서 반입된 국보급 도자기를 확보 중인데, 투자금이 부족하다. 되팔면 수십억원의 이익을 남길 수 있다"며 B씨에게 '용충' 등 중국산 도자기 10점을 소개했다.

B씨는 A 경사가 소개한 식당주인 C(61)씨를 만났고, 10여점의 도자기를 적은 비용으로 구매해 되팔 수익금을 각자 나누기로 했다.

10점의 도자기는 경찰인 A 경사의 소유였다. 동구의 한 골동품점에서 총 1억~2억원을 주고 산 A 경사는 본인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C씨 소유라고 속였다.

돈이 필요했던 B씨는 사업가 D씨

에게 "항실에서 쓰던 것이고 되팔면 50억~100억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며 구입비의 50%를 투자하라고 제안했다.

D씨는 지난해 7월까지 6억2000만원을 B씨에게 건네고 6점의 도자기를 확인했다. 이후 B씨는 D씨에게 받은 돈과 본인 자금을 합쳐 모두 10억8000만원을 C씨에게 건네고 10점의 도자기를 확보했다. B씨는 욕심 탓에 나머지 4점의 도자기는 D씨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경찰의 설명이다.

또 경찰 수사에서는 B씨가 도자기 판매를 주도하면서 본인 몫의 수익금을 더 남기기 위해 투자금을 부풀려려했던 정황도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수개월째 원금과 투자금을 받지 못한 D씨가 B씨를 고소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3월 B씨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송치했고,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A 경사와 C씨의 사기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B씨는 경찰조사 때까지 허더러도 도자기 10점의 가치가 50억원 이상이라고 믿고 있었다. 검찰에서 "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실제 한국감정원과 중국 북경대 교수로부터 받은 감정서를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여중생 성폭행 순경시보 파면

광주북부경찰은 지난 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 순경 시보를 파면했다고 5일 밝혔다.

A 순경 시보는 지난 5월 중순께 광주에서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만난 10대 가출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최근 전북의 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수사 중에는 징계를 결정할 수 없어 A 순경 시보를 대기 발령한 북부경찰서는 사건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자 곧바로 징계위를 열고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물어 중징계인 파면을 결정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망월동 묘역 이한열 열사 29주기**  
 5일 광주시 북구 망월동 구묘역에 열린 이한열 열사 29주기 추모식에서 참석자들이 1987년 6월 항쟁의 기록제가 된 이한열 열사의 회생정신을 되새기며 묵념을 하고 있다.

5일 광주시 북구 망월동 구묘역에 열린 이한열 열사 29주기 추모식에서 참석자들이 1987년 6월 항쟁의 기록제가 된 이한열 열사의 회생정신을 되새기며 묵념을 하고 있다.

**고향후배 협박 수천만원 갈취**  
**소년원 동기 무더기 구속**

해남경찰은 갓 취업한 사회초년생들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빼앗은 혐의(상습공갈)로 유모(22)씨 등 7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유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고교 졸업 후 광주 등지에 취업한 고향후배 A(19)씨 등 22명을 폭행·협박해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kwangju.co.kr

## 스마트폰 무단개통·불법 대출 대리점 주인 구속

해남경찰은 휴대전화를 사러 온 고객 정보를 빼돌려 스마트폰을 무단 개통하고 대출을 받은 혐의(사문서위조·행사 등)로 A(여·47)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해남군에서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며 얻은 고객 정보를 이용해 대당 100

만원 안팎의 스마트폰 12대를 무단 개통한 뒤 이들 고객 명의로 28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매달 일정 수준의 판매실적을 채우지 못하면 본사에서 최신 스마트폰을 공급해주지 않아 실적을 맞추려고 휴대전화를 무단 개통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무단 개통한 휴대전화 할부금 때문에 빚이 생기자 고객 명의로 대부분에 연리 34%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고 고객 명의의 휴대전화는 중고로 판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빚은 계속 늘었고 대부분이 즉이 대출 명의로에게 상황을 독촉하면서 피해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고리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게됐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 예비 사돈 혼사문제로 다투다 출동 경찰 폭행 경찰서행




○~50대 예비 사돈(?)들이 최근 사이가 나빠진 자녀 문제를 의논하려고 만난 식당에서 다투다가 출동한 경찰까지 때려 나란히 경찰서행.

○~5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50분께 광산구 송정동의 한 찜치 집에서 도모(57)씨와 김모(56)씨가 서로 주먹질하고 술병을 깨뜨린다는 신고를 받고

도산파출소 소속 경찰관 3명이 출동했는데, 취기가 오르고 화를 잡지 못한 도씨가 경찰관 2명에게도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긴급 체포된 도씨와 업무 방해 혐의로 입건된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지만 함께 살고 있는 자녀 사이가 나빠져 의논하던 자리에서 술이 과했다"며 선처를 호소. /김형호기자 khh@



##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 (주)

일반 부동산 매매, 임대 / 전 지역 신속 책임 중개 / 경,공매 NPL 컨설팅  
 20년경력 조여사 010 - 6211 - 4585 (동구 지산동434-2, 1층)

### 경매 추천물건

- ★ 광주 광산구 하남동 하남대로변 7층중 4층 상가317㎡ 감정이 7억8천 최저가 4억3천6백(56%)투자적합
- ★ 전라남도 나주시 오랑동 가야능공단지내 공장대지 3,587㎡ 건물 1,097㎡ 감정이 9억 최저가 9억 신축병동 참고 사무실
- ★ 담양 무정면 봉안리 공장대지 6,552㎡ 건물 2,473㎡ 감정이 13억9천3백 최저가 7억8천만원
- ★ 전남 장성군 삼서면 대곡리 요양병원 11,546㎡ 건물 5,733㎡ 감정이 48억8천6백 최저가 21억9천
- ★ 함평 해보면 용산리 공장대지 3,306㎡ 건물 1,977㎡ 감정이 26억1천1백 최저가 14억6천2백
- ★ 전남 강진군 성전면 가덕리 공장대지 3,661㎡ 건물 1,644㎡ 감정이 17억3천6백 최저가 4억5천5백(26%) 13번국도변
- ★ 광주 북구 연제동3층 상가대지 279㎡ 건물513㎡ 감정이 5억1천8백 최저가 3억6천2백 아파트단지앞
- ★ 광주 동구 금남로5가 대로변 산업은행인근 3층상가 대지 566㎡ 건물 827㎡ 광고효과최상 감정이 21억3천2백 최저가 21억3천2백

### 수익형 추천 물건

- ★ 광주 북구 유등동 대로변6층 상가대지 525㎡ 은행, 사우나등 고수익 매매 55억원
- ★ 광주 북구 유등 무인텔 대지1,010㎡ 건물1,610㎡ 객실20개 월 5천만원 매매 20억원
- ★ 광주서구화정동 6층모텔 유흥대지416㎡ 건물2,000㎡ 터미널뒤편 객실20개 상가4개 고수익을 보증금 2억5천 월 1천4백 매매 27억(용13억포함)
- ★ 광주 소촌동 대형상가 대지 2,146㎡ 주차장빌딩 포함 대형마트, 사우나등 고수익상가 매매 상담결정
- ★ 광주 동구 지산동 대지298㎡ 건물1,088㎡ 원룸18개 투룸6개 쓰리룸6개 (용4억5천포함) 대로변 버스정류장옆 매매 13억5천
- ★ 광주 수원동 경찰지구대 인근 아파트상권 4층상가 준주거지역 대지 475㎡ 월 8백만원 매매가 17억
- ★ 목포시 연산동 롯데스퍼 인근 대로변 버스정류장 신축 3층건물 대지 1,461㎡ 광고효과 최상 매매 35억
- ★ 광주 서구 풍암동 대형마트 대지 2,961㎡ 1층 마트, 2층 의원, 3층 학원 대형주차장 매매가 상담결정
- ★ 광주 산수동 대로변 4층건물 대지 596㎡ 건물 948㎡ 주택 86㎡포함 매매 12억5천만원

### 투자 추천 물건

- ★ 광주 북구 신암동 첨단2지구 신축4층 빌딩 대지782㎡ 건물1,829㎡ 보증금 6억 월 2천3백 용 18억 매매 48억
- ★ 주월동 EG더원아파트 인근 대지661㎡ 현식당운영중 투자적합 대형판매장 상가건축적합 매매 13억원
- ★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펜션 빌라부지적합 4,000㎡ 주택28세대 가능 수익형 28억선 교환원함
- ★ 전남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대규모펜션카페 대지15,668㎡ 건물900㎡ 수익성미려가치우수 매매가상담후결정
- ★ 광주 서구 풍암동 상업지구 대지510㎡ 건물3,245㎡ 지상9층 병원빌딩 용 30억 보증금 2억7천 월 3천2백만원 매매48억(요양병원허가취득)
- ★ 전남 장성군 장성읍 행북한옥마을 대지 666㎡ 강변조망 무상보증금 3천만원 용자 4천만원 매매 1억3천7백만원 조정가능 프리미엄없음
- ★ 광주 남구 주월동 남구청인근 고수익 4층상가, 오피스텔 대지 366㎡ 건물 947㎡ 지하, 1층상가 사무실, 2~4층 오피스텔 매매 13억5천
- ★ 전남 영암군 월출산 조망 5층 모텔 대지 1,181㎡ 건물850㎡ 대로변 내외부개매 매매 4억(용 2억7천) 투자적합 직영추천
- ★ 광주 북구 태평동 광주북초교인근 토지 11,052㎡ 도로점 투자가치 최적 매매12억

## 상가, 주택, 토지, 임야 매매하실분 전속중개 접수 상담환영 공인중개사 강천구 010 - 6838 - 6008